

민주당 '3선 고참' 정동채 前의원 무소속 서구청장 자문위원장 수락 왜?

총선 활로찾기 해설 속 조영택·김영진 의원 긴장

무소속인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인 정동채 전 국회의원을 구정 정책자문위원장으로 영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 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서구지역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여서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10일 서구청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서구청은 정동채 전 의원을 구정 정책자문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오는 14일 위촉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정 전 의원의 정책자문위원장 위촉 배경에는 김종식 서구청장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으로 인연을 맺었던 김 청장과 정 전 의원은 지난 서구청장 재선거 이후 꾸준히 만남을 가졌으며 서구지역 현안 문제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 관계자는 "재정이 어려운 구로서는 중앙정부와 국회 등 인맥 관계가 두터운 정동채 전 의원 같은 정치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정 전 의원이 문광부 장관 시절 계획했던 서구 마북동 탄약고 이전을 통한 교육·문화시설 지구 육성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통한 명품 문화·교육 서구를 건설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서구 갑(조영택 의원) 또는 서구 을(김영진 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어서 자문위원장 내정을 놓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감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소속 김 청장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김영진 국회의원을 의식해 경쟁자인 정 전 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적 석 아니냐는 조소스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정동채 전 의원의 자문위원장 임명은 정치적으로 보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라며 "어쨌든 지역구 현역 의원인 조영택, 김영진 의원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민감한 시기에 잠재적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을 특별한 역할도 없는 구정자문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광주와 서구를 위해 도와 달라는 김 청장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고, 지역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정책자문위원장 영입 제의를 받아들였다"며 "정치적 계산은 없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금미호 16일 케냐 도착... 석방금 지불 있었나

EU합대 도움받아 이동중... "선원 모두 안전" 김중규씨 "몸값 존작 없다" 정부 경위 조사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9일 풀려난 금미호305호가 10일 오전 공해상에서 유럽연합(EU) 합대 소속 핀란드군함과 만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금미호305호는 연료, 식량을 수급하고 간단한 점검을 받은 뒤 합대의 호위를 받으며 제3국의 안전지대인 케냐 몸바사항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현재로서는 금미호305호의 항해속도가 느려 석방 선원

들은 16일께 몸바사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청해부대 및 국방부에 의하면 석방 선원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고 가벼운 환자만 있다고 전했다. 선장 김대근씨와 기관장 김용현씨 등 한국인 2명은 건강한 편이고 케냐 선원 5명이 감기, 설사 등 가벼운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금미호305호가 석방됨에 따라 정확한 석방경위를 조사하기로 하고 케냐에서 선박대리점을 운영하며 이 당국자는 또 "현재로서는 금미호305호의 항해속도가 느려 석방 선원

인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협상불가 원칙이 강했던 데다 선원 43명을 보호·관리하는데 따른 비용이 크고 심지어 환자들까지 생겨나고 있어 더는 여유하는 실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미호 석방 협상에 참여했던 김 대표는 이날 "(금미호 석방과 관련, 해적에게) 돈을 줬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준 사실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김씨는 석방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 배를 담보로 30만 달러를 대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지만 정부에서 이를 거절해 돈을 마련한 길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시교육청 조직개편안 '찬반 팽팽' 의결 보류

광주시의회는 10일 교육위원회를 열고 정책기획담당관 신설 등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광주시교육청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으나 '갑론을박' 끝에 의결을 보류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7명의 의원이 참석해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광주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으나 의원들 간 의견차이가 커 오는 14일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핵심 쟁점은 신설키로 한 정책기획담당관실의 기능이었으며,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들과 교총 출신 교육위원들 사이에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화재 3년 송례문 복원 한창

송례문 화재 3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북인천장에서 관계자들이 전통기법으로 송례문을 복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임법정책담당관 채용 방식?

집행부-의회간 팽팽한 줄다리기

광주시의회가 정원조정을 통해 4급 직위인 임법정책담당관을 신설키로 했으나 채용·인사 방식과 직제를 놓고 광주시와 시의회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본청(집행기관)의 정원을 1941명에서 1940명으로 줄이는 대신,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60명에서 61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는 오는 14일 해당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이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광주시의회에 4급 직위인 임법정책담당관이 신설된다. 그러나 임법정책관 인사방식과 직제를 놓고 시 본청과 의회 사이에 힘

겨투기가 펼쳐지고 있다. 광주시는 일반직(준공직급)으로 발령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의회는 자체 공모를 통해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요구하고 맞서고 있다. 또 임법정책관이 관장하는 임법정책실을 기존대로 운영위원장 산하에 둘 것인지, 사무처장 산하에 둘 것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광주시는 사무처장 산하에 일반직 4급을 배치해 집행부의 인사 솜통을 트기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인사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외부 계약직 인사 영입을 주장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내 민주화단체 "지지"

이집트의 반정부 지도자들은 9일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실현하기 위해 금요 기도회가 열리는 오는 11일에 다시 한번 '100만 향의 시위'를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집트 정부는 군대를 동원한 강경 진압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동안 시위를 조직한 젊은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인 할레드 압델-하미드는 11일의 100만 시위는 카이로의 중심지인 타흐리르 광장 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위와 함께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도록 호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집트는 이날 현재 시위가 다소 진정된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

자의 피라미드를 비롯해 이집트의 관광 명소들은 다시 문을 열고 있던 시위에 따른 혼란을 피해 이집트를 떠난 외국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수 천명의 시위대들은 여전히 카이로의 중심 타흐리르 광장에서 노숙하며 "우리는 무바라크가 물러날 때까지 광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타흐리르 광장의 시위대와 연계되지 않은 산발적인 시위가 이집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수에즈 운하의 항구 도시 사이드 시에서는 300명 가량의 슬럼가 주민들이 정부 청사에 불을 질렀다. 자신들이 살 집을 제대로 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다. 경찰은 이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방관했다. 이집트 관영 통신 메나(MENA)에

따르면 아흐메드 아불 가이트 외무장관은 시위 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아랍권 위성채널 알-아라비아와 인터뷰에서 "혼란이 빚어진다면 군대가 국가를 통제하기 위해 개입할 것"이라며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오마르 술레이만 신임 부통령이 더이상 시위를 용인할 수 없다면 서 쿠데타 가능성까지 거론한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한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 등 국내 7개 민주화운동 기념 기관·단체는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이집트인들에게 우정과 지지를 보내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연대사에서 "30여년에 걸쳐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이룬 한국의 경험을 이집트 민중과 나누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북한軍 "대화중단"... 남측에 책임 전가

북한군은 10일 남측 군방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고 대화 자체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더이상 상충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사회담 북측 대표단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공보'에서 "겉으로는 대화에 관심이 있는 듯

적으로 빠져나간 북측 군대표단이 공보를 통해 남측과 더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남북군대간 대화는 당분간 교착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날 5일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남북간 상호 비방 중단을 제안한 뒤 남한 당국에 대한 거친 표현을 삼가해온 북한이 이번엔 남한 정부를 '역적패당'으로 다시 지칭함에 따라 대남비난의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남성 휴대용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꿈꾸는 공주]

내 여자가 장안에 화제가 얼굴이며 몸매가 모델에 맞지 않는 데 거기에다 흔들리며 떨어지는 향락거리는 머릿결 보드랍고 말랑거리는 피부 가슴과 신체부위가 섬세한데 키는 1m50이 되며 색시하니 몸인지 생시인지 헷갈린다. 분노적 아니 성숙을 해서하면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성' 범위 예방도 되니 내여자가 인기폭발로 불타가 난다.

※ 8만원 상당의 선물과 휴대용 가방도 드립니다.

(식약청 USA 통관제품)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지구력이 당당해 지므로 섭취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1100-4114-09 우회정

1577-4101

010-8558-4114, 010-8952-4114

청소 및 건축 종합 관리

저희 (주)대진용역은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업체만의 체계적인 업무처리 시스템과 각 서비스별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모든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주)대진용역의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주)대진용역의 서비스 —

- 청소용역: 입주청소, 준공청소, 상주청소
- 소독용역: 소독 및 비취벌레·개미·해충 박멸
- 경비용역: 시설경비, 경호업무
- 심부름: 잔심부름, 개인업무
- 대리운전: 장거리 운행 및 일, 월 대리운전

(주) 대진 용역

TEL 062)372-2332, 371-6644 FAX 062)376-8949

경미원 및 청소원, 운전기사 모집 및 알선 해 드립니다. 모집인원 : 경비인원 00명, 청소인원 00명, 운전기사 00명

정품! 정량!! 난방유

SK 삼보주유소

마일리지카드 발행 (인적사항 기재 없음)

명품 외부 세차! 깔끔 내부 세차!

차량 무료점검 서비스 시행 Speed Mate와 업무제휴

난방유 할인판매

- ▶ OK로고 있는 전 카드 할인혜택
- ▶ 한드림당 4천원~6천원 할인
- ▶ OK캐쉬백적립

내부세차 합니다

산수오거리에서 자산(법원) 큰사거리 지나 200m우측

062-224-5189
011-666-7899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중·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 김정수)